설 연휴 잊은 구제역 방역활동 르포

"전염 막자" 한마음 길 막혀도 불평없어

꼬리 문 귀성차량 일일이 소독
광주·전남 매일 2000여명 동원

"설 연휴기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을 하면서 보내게 돼 아쉽기도 하지만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죠."

설 연휴 중이었던 지난 5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남구 칠석동 가축방역통제초소. 이 마을 주민 이삼용(56)씨는 설 명절을 잊은 채 방역에 여념이 없었다.

이씨는 방역 지원을 나온 육군 31사단 소속 군인 1명과 함께 나주시 남평읍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귀성 차량에 연방 경광봉을 흔들며 서행을 유도했다. 구제역과 AI가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귀성객들이 타고 온 차량에 소독제가 잘 살포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회색 방역복과 주황색 안전조끼를 입은 이씨의 얼굴에서는 연일 계속된 방역 작업 때문인지 다소 피곤한 기색이 엿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방역작업을 하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광주로 향하는 귀성객들 역시 혹시나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인해 가축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을까 초소 100여m 전방에서부터 서행을 하며 방역 작업에 최대한 협조하는 분위기였다. 차량 10여대가 초소 앞에서 서행했지만 불평하는 귀성객들은 없었다.

얼마 뒤 이씨와 교대한 남구청 직원 최민주(40·광주시 남구 진월동)씨와 군인 김성한 이병(21), 주민 김정훈(26)씨에게서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최씨는 방역 작업 때문에 이번 설 연휴를 포기했다. 예년 같았으면 연휴 내내 고향 나주에 머물며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척들과 시간을 보냈겠지만 올해는 설 당일 아침 간단히 성묘만 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최씨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 추세지만 다행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설을 친척들과 함께 보내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오후 6시가 되자 주변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정귀(54)씨가 저녁 식사를 챙겨 초소를 방문했다. 구제역의 여파는 직접 방역에 나선 공무원과 주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식당 주인의 설 까지 빼앗아 갔다.

방역 작업에 투입된 이들은 2교대로 좁은 회색 컨테이너 초소에 들어간 뒤 단 10분 만에 저녁을 해결했다. 잠시 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자 최씨와 이씨 등은 방역복의 지퍼를 최대한 끌어 올렸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야간 방역작업에 돌입하기 위해서였다.

이씨는 다시 한번 차량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물탱크에 소독약을 넣었다. 작동중인 물탱크 옆에 놓인 또 다른 물탱크에 물을 받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도로에는 설을 맞아 고향을 오가는 귀성 차량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이번 설연휴 기간 귀성·귀경객들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동광주 나들목 등 13곳의 방역초소에 600여명을, 전남도는 280여곳의 방역초소에 15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소독작업을 벌였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의 최대 고비로 여겨졌던 설 연휴기간 광주·전남에서는 공무원과 주민, 군인들이 명절도 잊은 채 방역작업에 힘을 쏟았다. 지난 5일 광주시 남구 칠석동 방역초소에서 주민 이삼용씨가 소독약이 담긴 물탱크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지역 AI 발생 한달만에 진정 기미
구제역도 의심신고 없어 청정지역 유지

"날씨 포근해져 소독작업 효과 확산 방지 도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후 12일째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은데다, 확산 여부를 관가름짓는 최대 고비로 여겨졌던 설 연휴 기간에도 별다른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보성군 노동면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6일 현재까지 고병원성으로 의심할만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3일 영암군 시종면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4500마리의 오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영암·나주·화순·장흥·보성 등에서 하루에도 5~6건의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으로 수백만마리의 닭·오리가 땅에 묻혔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이후 의심신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등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라 확산 우려가 제기됐던 설 연휴 기간에도 특이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소 포근한 날씨로 소독 작업의 효과가 커진 점도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준 것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소독작업은 기온이 떨어지면 효과를 내지 못한다.

설 연휴 기간 단 한 건의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데 따라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게 됐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의 축산밀집단지인 충남 홍성 돼지농장과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충남 천안의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데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2주)을 고려하면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에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AI나 구제역 의심신고가 없었지만 잠복기간이 있는 만큼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구제역 종식이 이뤄질 때까지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AI 발생 한달…쏟아진 기록들

닭·오리 319만마리 매몰 '재앙'
동원인력·재정손실도 역대 최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을 덮친 지 한달을 넘기면서 우울한 신기록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이번 AI는 역대 최악의 피해액(223억원)을 낳았던 2008년을 뛰어넘는 '재앙'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156농가에서 사육중인 닭 88만6000마리·오리 229만1000마리 등 모두 319만3000마리가 AI로 땅에 매몰됐다.

이같은 살처분 규모는 25개 농가에서 22만2000마리의 닭·오리가 땅에 묻힌 2003년과 43개 농가에서 사육중인 닭·오리 등 74만3000마리가 매몰 처분된 2008년을 압도한다.

살처분 등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도 역대 최고 피해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난 2003년과 2008년의 살처분 보상금은 각각 8억5000만원과 69억원.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지급된 매몰처분 보상금만 74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이 금액은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 수준이다.

여기에 매몰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경영안전자금 및 학자금 면제·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비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수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3년 이같은 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19억원에 이르고 2008년은 피해액이 223억원에 달했다.

동원인력과 재정 지출 규모도 최대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AI에 따른 살처분 및 차단 방역을 위해 연인원 3057명을 동원하고 도와 시·군 경계에 76개의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7억원의 예비비를 긴급히 확보, 방역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소 54만8000마리와 돼지 96만5000마리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이뤄졌다.

구제역 사태로 전국에서 매몰된 가축은 ▲소 3633농장 14만9423마리 ▲돼지 1590농장 294만9899마리 ▲염소 200농장 5343마리 ▲사슴 133농장 2806마리 등 총 5556농장 310만7471마리에 이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美쇠고기 수입 급증

구제역 틈타 전년 대비 43% 늘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틈을 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8만4822t으로 전년 대비 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쇠고기 수입 증가율 16.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주당 평균 2000t 수준으로 높아졌고, 연말에는 주당 2500t을 육박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비중도 2009년 26.5%에서 지난해에는 32.5%로 높아져 1위인 호주산 쇠고기(53%)와의 격차를 좁혔다.

미국산 돼지고기는 수입 돼지고기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산 돼지고기 총 수입량은 7만5천362t으로, 전체 수입 돼지고기 중에서 26.1%를 차지하며 캐나다산 18.9%를 크게 앞질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산 육류 공급량이 감소하고, 국내 육류에 대한 불안 심리까지 겹칠 경우 수입 육류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트래블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대표이사 최 금 환

무안↔방콕 직항
가족과의 여행 안전하고 편리한 무안 직항 편으로

관광 2011. 1.30 ~ 3.27 출발까지 총17회!

★ 방콕, 파타야
3박4일 ₩ 799,000~ [출발-목요일]

★ 방콕, 캄보디아(앙코르왓)
3박4일 ₩ 899,000~ [출발-목요일]

★ 방콕, 파타야
3박5일 ₩ 849,000~ [출발-일요일]

★ 방콕, 캄보디아(앙코르왓)
3박5일 ₩ 949,000~ [출발-일요일]

불포함 :유류할증료(₩68,000),기사&가이드팁,캄보디아 비자비용

골프

★ 무제한 골프 (90홀)
3박4일 ₩ 1,049,000~

★ 방콕,파타야 골프 (54홀)
3박4일 ₩ 1,099,000~

★ 무제한 골프 (108홀)
3박5일 ₩ 1,099,000~

★ 방콕,파타야 골프 (54홀)
3박5일 ₩ 1,149,000~

불포함:유류할증료(₩68,000),기사&가이드팁,골프부대경비-골프렌탈비/캐디피,전통카드/캐디팁

일본
추운겨울 일본 규슈 온천으로 따뜻하게 보내세요

★ 북큐슈 야마나미 통나무 펜션(벳부족탕체험,구은계란증정)
4일 ₩ 399,000 출발일 : 2/11,13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 구중산 스지유 마을 전통료칸 숙박
4일 ₩ 549,000~ 출발일 : 2/11,13
(광주 출.도착, 최소 인원 15명 이상시 출발 합니다.)

3대특전
★ 아소팜VS스기노이스페셜 ★
4일 ₩ 619,000 출발일 : 2/14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 (광주 출-도착, 최소 인원 16명 이상시 출발합니다.)

무안↔상해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상해,황산(취온천♨),항주
4일 ₩ 549,000 출발일 : 2/14,16,28

★ 상해,장가계,천문산
4일 ₩ 699,000 출발일 : 2/14,16,28
불포함: 비자피,가이드&기사팁(1인-$30)

제주도
목포 출발
퀸메리호로 떠나는 제주도 가족여행!!

★ 제주도 올래길투어
2박3일 ₩ 129,000~

★ 제주도 관광
2박3일 ₩ 13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원,광주-목포 수송비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